

통신事業 현황과 自由化의 得失



吳 聖 珠

한국전기통신공사 국제 계획국장

필 자

- ▲고려대 법과대학 졸업
- ▲한국전기통신공사 국제영업국장
- ▲同社 국제계획국장(현)

개방화 물결

오랜 독점의 온상에서 안일한 발전을 거듭하던 각국의 통신업계는 70년대에 들어서며 특히 선진국으로부터 경쟁이란 태풍과 개방의 물결에 부딪쳐 자체정비와 자기혁신의 길을 모색치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즉, 독점적 통신사업의 規制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은 물론 기업경영의 일반론인 경쟁원리가 통신사업에도 도입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自由競爭體制에 길들여져 있는 미국으로부터 시작되어 세계전역으로 점진 파급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通信設備의 단말기를 비롯한 통신관련기기의 급속한 技術革新과 이 양

자의 결합으로 통신에 대한 수요가 高度化, 多樣化되었고 컴퓨터와 통신의 연계로 인한 정보의 홍수에 기인한다.

競爭原理의 도입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形態와 過程은 서로 다르다. 미국은 AT & T가 음성통신을 독점하고 세계적 거대 기업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에 대항하여 통신 사업자들이 기업독점 금지법 위반이란 문제를 제기, 오랜 法的鬭爭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영국은 경제의 長期沈滯 打開策으로 民營化를 추진하였다. 그 외의 국가로서 서독은 86년 3월 정부자문위원회가 통신시장의 開放과 民營化를 골자로하는 잠정권고안을 발표하고 서서히 개방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는 87년 4월까지 각종 통신 서비스중에서, 약 40%를 民間에게 開放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하였다.

東南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86년 8월 1일 通信事業을 민영화하여 87년 1월 STM(Syarikat Telecom Malaysia)을 발족시켰고, 태국도 TOT(Telephone Organization of Thailand)事業의 일부를 민영화시켜 업무의 效率化를 추구한다는 목적하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日本通信시장 자율화 現況

모방 개발과 또 그것을 발전시키는 데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일본은 많은 분야에서도 그러하지만 通信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 및 번영을 가져옴으로써 국제적으로는 강력한 경쟁의 대상국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일본 내적으로 自己革新과 競爭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일반적으로 通信事業은 서비스가 國民生活에 필수적이고 전국적으로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하는 公平性, 通信網의 一元的 운영에 따른 規模의 經濟(Economy of Scale)가 작용하는 自然獨占性,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標準化에 의한 사용, 즉, 기술적 統一性이 통신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특성이었다. 일본에서는 78년에 가입전화의 “積滯解消,” 79년 “全國自動다이얼화”가 달성되었고 또한 전기통신사업을 둘러싼 環境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어 일원적인 運營體制에 대한 再檢査가 요청되게 되었다.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1) 고도의 사회발전으로 이에 부응하는 顧客의 欲求(Needs)가 급속히 高度化·多様化됨.
- (2) 기술혁신에 의한 光섬유나 通信衛星 등 각종 미디어의 출현에 의해 二重投資의 非經濟性(自然獨占性)의 약화.
- (3) 인터페이스 技術의 발달로 技術

的 統一의 필요성이 감소

(4) 민간기업도 공사에 뒤지지 않는 資金力과 技術水準을 보유하고 있어 收益性이 좋은 통신분야에 참여기회 요청 壓力의 증대.

(5) 미국 AT&T사의 分割과 高度서비스 부문의 참여와 영국 BT의 민영화 등 국제적으로 통신부문에 競爭原理의 도입.

(6) 資源이 적고 貿易依存度가 높은 일본으로서는 통신사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國際競爭力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 팽배로 더 이상 獨占經營體制 고수에 어려움 대두.

이러한 배경때문에 85년 4월 1일 신전기통신사업법을 제정, 발효케하여 新規事業者를 참여케 함으로써 通信事業制度를 근본적으로 개편, 자유화 체제의 문호를 열게 되었다.

일본 통신시장에 公共性을 確保하면서 公正한 경쟁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비롯한 關聯法을 개정하였는 바, 그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新電氣通信事業法

신전기통신사업법은 표1과같이 제1종 전기통신사업(시설을 근거로 한 사업)과 第2種 전기통신사업(再販賣事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같은 구분은 제공되는 서비스形態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어느 통신사업자인지 전화, 텔렉스, 情報通信 및 VA-N서비스를 포함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제1종 사업은 자기자신의 回線設備을 설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公衆生活과 국가산업 및 경제활동에 중요한 전기통신 下部構造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基本事業이다. 따라서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우정성(MPT)의 許可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서비스 요금과 조건을 明示하여 MPT에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2종 사업은 제1종 사업자로 부터 回線을 專用, 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2종

<표 1> 일본 전기통신사업법의 체제

구분	업종	우정성에의 사업 착수 인가절차	요금 인가방법	외국업자 참여 비율
제1종 전기통신사업	전기통신업자가 회선시설을 보유하고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면허	관허	1/3이하 NTT, KDD는 법으로 금지
제2종 전기통신사업	제2종 특수 회선시설은 제1종 업자에 계 확보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등록	통보	규정 없음
	제2종 일반 불특정다수 이용자를 위한 대규모 전기통신 시설사업 또는 일본과 외국의 한 지점간의 통신시설사업 제2종 특수사업 이외의 제2종 전기통신사업	등록	통보	

하고 있다. 즉, 우정성에 의한 신규참여규제, 요금규제 등을 완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VAN업계 등은 법개정이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본정보통신사업의 기본적방향은 자유화로 갈 것이 확실하나, 자유화에 따른 규제와의 조화가 앞으로 커다란 정보통신정책의課題로 남아 있다.

정보통신을 이용한 지역균형 발전

일본은 경제력 및 情報處理·利用能力이 동경을 중심으로 몇몇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이에따른 지역간 불균형문제가 커다란 사회적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教育, 스포츠 시설 등 사회문화기능을 促進시키기 위하여 뉴미디어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지역개발정책이 각부처별로 앞다투어 발표되었다. 여기에는 우정성의 텔레토피아구상과 텔레콤프라자, 통신성의 테크노포리스구상과 뉴미디어·커뮤니티구상, 건설성의 인텔리제트·시티, 농림수산성의 그린토피아 등이 포함된다.

텔레토피아구상과 테크노포리스구상은 이미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된 바 있다.

뉴미디어·커뮤니티 구상은 각지역별특성에 따른 각종 모델情報시스템을 구축하여 社会間接資本을 정비하며, 모델地域을 기점으로 한 高度情報化社会의 基盤形成을 촉진할 情報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경제·사회의 활성화, 고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구상의 구체적인 推進方法은 2단계로 첫째, 모델情報시스템(연구·

교육도시형, 농림업형 등 24개로 구분)마다 모델지형을 설정하여, 구체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용함으로써 정보시스템 등의 評價를 하고, 이 과정을 통해 개선해야만 할 점을 把握함과 동시에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용에 따른 노하우를 축적한다.

둘째, 모델지역에서 개발, 시험한 시스템은 다른 類似地域에 보급시키기 위하여 應用手法를 개발함과 동시에 모델지역을 전국적인 정보네트워크화의 거점으로 하여 정보시스템의 보급 및 네트워크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구상은 각지역의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모델지역으로 21개, 應用發展地域으로 34개 등 총 55개지역이 참가하고 있다.

최근의 고도정보화의 급속한 전진으로 정보시장으로서의 기능, 정보활용의 장으로서의 기능 등 새로운 都市機能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情報通信基盤·시스템정비를 도시의 기반정비와 함께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을 목적으로 인텔리제트·시티구상이 계획되었다. 이 구상에는 요코하마시를 비롯해 86년말 현재 22개 도시가 참가하고 있다.

그린토피아 구상은 뉴미디어 등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농림수산 부문의 生産性向上, 유통·加工의 합리화, 지역활성화 등을 통해 21세기에 매력있는 농어촌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에는 농림어업단체, 행정기관, 관련기업 등을 중심으로 각 지역별정보센터를 설치한다. 이 센터에는 地域氣象情報, 病虫害發生情報, 지역행사정보 등을 중심으로 한 영농지원 정보시스템, 流通出荷情報시스템, 농

어촌생활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농가 및 관련기관에 정보를 처리·제공한다.

현재 그린토피아 구상에는 35개지역이 참가하고 있으며, 농업근대화자금, 농림어업금융고자금, 지역농업통합정비자금 등에 의한 融資制度가 실시되고 있다.

경쟁원리 도입으로 活性化 시급

앞으로 일본의 정보통신분야의 자유화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 정책의 最大目的은 21세기를 향한 가장 중요한 国家戰略産業으로부터 정보통신산업에 競争原理를 도입하여 활성화를 시킴으로서, 생활의 정보화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데 있다. 앞으로의 최대정책 과제는 自由競争原理와 참여, 요금과 관련된 규제와의 관계정립에 있다.

한편, 일본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地域開發政策의 특징은 첫째로, 지방자치단체, 주민, 기업 등 해당지역사회의 構成員이 모두 참가하고 있으며, 개발주체도 民官合同의 第3섹터의 형태를 많이 택하고 있다.

둘째, 지역적특성을 고려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최대의 主眼點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즉, 지금까지의 중앙집중의 지역개발정책에서 地域分散으로의 전환이다.

셋째, 정보통신과 국제공항 등 교통체계를 연결시켜 정보와 수송을 일체화함으로써, 유통의 고도화를 실현시키고 있다.

넷째, 중앙정부의 각부처별 경쟁적 지역개발정책의 추진이다.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이와같은 競争心유발은 政策수행에 있어 커다란 자극제가 될 것이다. ■